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일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태엽을 감아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미니어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주셨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 오셔서 역사해 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읽어 드릴 말씀은 마 1:23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14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 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비록 죄인들이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이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멸망이 예정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살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3:1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65:4에서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시 73:28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복인지를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대부분 더 부자로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권력을 누리며 살 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이 진짜 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요 그렇게 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